

## <고백 : 잊힌 자>

시나리오- 아카네 카게 편

## **#1 하루유 정거장 -실외/저녁**

어둑어둑한 분위기 속 등이 점멸하고, 하루유 마을에 정차하는 열차가 보인다. 그곳에서 내리는 '아카네 카페'. 플랫폼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래된 스톱 앞에는 한 노파가 가만히 앉아 코코아를 마시고 있다. 그녀는 분위기를 만끽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카페에게 말을 건네는,

**노파**

*작가 양반인가 보구만 그려.*

**아카네 카페**

*...절 아시나요?*

카페는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노파가 카페의 손에 들린 메모장과 펜을 흘린다.

**노파**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난 지금껏 사람 죽인 놈들도 많이 봐왔다고.*

...

*그런 건 연관되지 않는게 가장 좋지.*

노파가 왤지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노파**

*조심하라고. 다 쓰러져 가는 신사라 아무도 관리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흥흥해.*

노파가 카페에게 이만 가보라는 손시늉을 한다. 꾸벅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돌아 나가는 카페.

**아카네 카페**

*재수없는 소리만 골라 하는군. 할머니 노망이 났나...*

중얼거리는 카페. 역사를 빠져나오자 보이는 너른 비포장도로. 길을 따라 나선다.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카페는 잠시 멈추어 팔을 쓰다듬는다. 부엉이 소리-

## **#2 비포장도로 위 -실외/밤**

기다란 길의 좌우에 이끼가 가득한 석등롱이 세워져 있다. 끊임없이 걸어가던 와중 작은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읽으며 메모장에 적는 카페,

## <메모장>

260m 직진 / 미야오카 신사

그때,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포효소리가 들린다. 카게가 돌아보자 카게의 몸집보다 두 배가 큰 검정 멧돼지가 달려오고 있다.

### 아카네 카게

까아악!!!!!!!!!!!!!!

카게는 멧돼지를 피해 열심히 달려 도망쳐보지만 너무 빠른 멧돼지의 속도에 거의 다 따라잡힌다. 멀리 키 큰 고목이 있다. 고목의 기둥 겉면에 노란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고목 쪽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카게, 카게가 고목 앞에 다다르자 그 위로-

### ※도움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장애물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카게가 지시대로 고목을 건드리자 멧돼지의 코 앞에서 고목이 풀썩 넘어진다.

고목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멧돼지.

## #2-1 비포장도로 위 -실외/밤

한참을 고목과 씨름하는 멧돼지. 카게가 화가 난 멧돼지를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

### 아카네 카게

이미 충분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너라도 나한테 꼬리치기 좀 마! 짜증나는 녀석.

카게의 말을 듣고 더 흥분하여 날뛰는 멧돼지. 그 순간, 멧돼지가 엄청난 괴력으로 고목을 으스러뜨린 뒤 곧바로 카게를 덮친다. 어떤 비명도 내지르지 못하는 카게, 이 위로 뜨는,

## GAME OVER

이후 암전

## #2-2 비포장도로 위 -실외/밤

카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멧돼지를 뒤로하고 빠르게 도망친다. 직진 후 앞에 끝없는 돌계단이 나오고, 걸어 올라가다보면 서서히 암전

### #3 미야오카 신사 앞 -실외/밤

미야오카 신사의 본전이 멀리 보인다. 왕년에는 우아하고 고전적인 일본 스타일의 목조 신사였을 것이지만, 현재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보이고 군데군데 부서져 있기까지 하다. 주민들이 투기한 듯한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다. 입구의 양옆으로 나무로 조각된 보호신이 세워져 있다. 허나 근처에는 정원이나 큰 나무 같은 조경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아카네 가게

*헉,헉... 뭘 놔의 언덕이 이렇게 가팔라?*

신사 앞에 멈춰서서 한참 바라만 보다 질문하는 가게,

#### 아카네 가게

*잘 왔어, 아카네 가게.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뭐야? 무엇을 위해 여기 왔어?*

질문지 아래로 뜨는 선택지-

① 자유

② 뉘우침

③ 확신

1. 자유 선택 시

#### 아카네 가게

*맞아, 자유. 내가 원하는 건 자유야. 나의 선택에 두려울 게 전혀 없었던 지난 날들. ... 난 틀리지 않았어.*

2. 뉘우침 선택 시

#### 아카네 가게

*... 내가 정말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걸까? 분명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또 사랑해줬잖아?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내 평생, 아니 우리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걸. ... 난 틀리지 않았어.*

3. 확신 선택 시

#### 아카네 가게

*그래, 진실 그 까짓 거 이 몸이 모두 밝혀내고 날 욕했던 모두의 코를 뭉개버릴 거야. 망할 자식*

*들. 지들이 대체 뭘 안다고. ... 난 틀리지 않았어.*

카게가 심호흡을 후- 내쉬 뒤 신사의 입구를 향해 간다.

#### **#4 미야오카 신사 본전 소도<sup>1</sup>- 실내/밤 -**

카게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구멍난 천장과 완전한 검정색의 무언가로 물든 벽을 마주한다. 흠칫 놀라는 카게.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나는 매캐한 먼지냄새가 피어올랐고, 복도와 이웃한 방들 사이로 섞인 느낌이 맴돌았다. 쓰러진 기둥과 부서진 단추들이 거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코를 막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카게,

**아카네 카게**

*여기가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카게가 주변을 둘러보다 이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방 하나로 들어간다.

#### **#5 미야오카 신사 본전 안무장<sup>2</sup>- 실내/밤**

방 안은 어둡고 습기가 느껴진다. 입구 반대편에 난 작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 카게. 창문 건너를 바라보며,

**아카네 카게**

*때가 켜 있고 스크래치가 많아 바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달이 밝았지만 내부로 달빛이 새지는 않는다.*

카게가 창문에서 떨어져 책상 위의 먼지에 뒤덮인 책 한무더기를 바라본다. 그 옆으로 의식용 그릇과 언젠가 사용한 듯한 향이 놓여 있다. 카게는 그냥 지나친다.

이어 벽 한면에 걸려 있는 고대 서화를 발견한다.

**아카네 카게**

*일본 풍경이 그려져 있는 고대 서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녹슨 색의 철*

---

<sup>1</sup> 미야오카 신사 본전의 복도

<sup>2</sup> 미야오카 신사 본전 내부에 있는 방으로, 주로 의례나 기도를 위해 준비되는 장소다.

제와 골동품으로 꾸며져 있다.

... 가져갈까?

① 가져간다.

② 그냥 둔다.

가져간다 선택 시 카게가 검은색 나일론 백팩에 서화를 넣는다. 가방이 묵직해졌다. 방 모퉁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장롱과 짙은 고동색의 2단 서랍장이 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만져보는 카게,

아카네 카게

... 자물쇠가 걸려 있어 열리지 않는다. 종이 몇 장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카게가 상자를 뒤로 하고 방을 나간다.

## **#5.1 미야오카 신사 본전 소도 실내/밤**

카게가 안무장의 맞은편 방으로 들어간다.

## **#6 미야오카 신사 본전 사당<sup>3</sup>- 실내/밤**

카게가 방을 들어서자 안무장과 같은 위치에 작은 창문이 나 있는 게 보인다. 창문을 통해 이상 하리만치 밝고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다. 창문을 향해 걸어가는 카게,

아카네 카게

창을 통해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다. 분명 아까는 빛 한 점 없었는데...

카게가 두리번거리며 방 내부를 유심히 관찰한다.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 인위적인 각도로 꺾여 있다. 먼지가 풀썩이는 목조 바닥 위로 고서와 여러 신체神체가 널브러져 있다. 그 중 깨진 거울 앞으로 다가가는 카게, 거울을 주워 관찰한다.

아카네 카게

꽤 두께가 있는 거울 조각이다. 겉면은 특별한 금속으로 처리되어 있고, 섬세하게 다듬어져 윤기가 흐른다. 소나무의 잎과 용의 비늘을 결합한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 가져갈까?

---

<sup>3</sup> 미야오카 신사 본전의 신앙실로, 신성한 행사를 거행하거나 제물 및 헌화물을 놓는 곳이다.

① 가져간다.

② 그냥 둔다.

거울을 가방에 넣으려던 카게, 그때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고 혼잣말,

**아카네 카게**

*이상한 빛, 그리고 거울. 이것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① 사용한다.

② 그냥 둔다.

카게가 거울을 들어 빛이 끊어지는 곳에 조심스레 가져다 뒀다. 그러자 잘려 있던 빛이 연장되며 방 바깥을 향했다. 침을 꿀꺽이며 빛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가보는 카게,

#### **#6.1 미야오카 신사 본전 소도- 실내/밤**

복도를 가로지르며 길게 뻗어 있는 빛줄기가 끝자락에 위치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카게가 방을 향해 걸어간다.

#### **#7 미야오카 신사 본전 행랑채- 실내/밤**

카게가 거울로 빛을 움직이며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 내부는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장식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전부 녹슬어 있었고 널브러진 이불 또한 전부 타버린 지 오래였다. 카게가 한 걸음 내딛은 그 순간, 갑자기 이불 아래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빠르게 기어나온다.

**아카네 카게**

*까악!!!!!!!!!!!!!!*

바퀴벌레는 카게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망간다.

**아카네 카게**

*버, 벌레일뿐이야, 카게. 지금 바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 이 빛으로 태워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젠장!*

긴장감과 공포 탓에 식은땀을 흘리는 카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거울로 빛을 끌고 가 어두운 그림자로 어른거리는 한 상자를 향해 비춘다.

## 아카네 가게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이런 조잡한 소음들은 내 머리를 식히는 데 도움이 안 되거든.*

카게가 반사된 빛을 작은 상자에 적중시킨다. 화르르 타는 소리와 함께 재가 되어버린 상자. 그 안에는 구리로 만들어진 열쇠가 있다. 카게는 묘한 희열을 느끼며 열쇠를 주우려 하자,

그 순간, 카게 앞에 검은 갑옷을 두른 일본인 전사의 망령이 등장한다.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뒤를 돌아 도망치는 카게, 자신을 뒤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 **#7.1 미야오카 신사 본전 소도 -실내/밤**

카게가 복도를 빠르게 질주한다. 뒤로 망령이 바짝 붙어 쫓아오고 있다.

## 아카네 가게

*느낄 수 있어. 그 할멈이 한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저건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너무 빨라. 이대로 가다간...*

...

*아까 어디선가 장룡을 봤었는데!*

### **#8 마야오카 신사 본전 안무장 -실내/밤**

카게가 혈떡이며 안무장 안으로 들어온다. 모퉁이에 있는 장룡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닫았다.

### **#8.1 마야오카 신사 본전 안무장(장룡 안) -실내/밤**

새어나오는 숨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며 인기척을 죽이는 카게,

## 아카네 가게

.....

괴물과 흡사, 기괴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이 으스스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 **#8.1-1 미야오카 신사 본전 안무장(장롱 안) -실내/밤**

장롱 안의 공기는 더욱 텅텅하다. 뿌얘지는 시야와 계속되는 기침, 결국 참지 못하고 카게가 기침 소리를 내 버리고 마는데, 압도적인 힘에 의해 장롱의 문이 부서지고 눈에 들어오는 흥측한 물골. 피칠갑 되어 있는 안면과 입 한쪽이 길게 찢어져 있다. 그 위로-

#### **GAME OVER**

아카네 카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 **#8.1-2 미야오카 신사 본전 안무장(장롱 안) -실내/밤**

모든 신경을 청각에 곤두세우고 기다리는 카게. 괴물의 분한 듯한 숨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카게가 기침을 가까스로 참는다.

일본인 전사의 망령

*그 열쇠는... 그 열쇠는... 그 열쇠는...*

아카네 카게

*...?*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카게가 장롱에서 나온다.

# <고백 : 잊힌 자>

## 인물관계도-아카네 카게 편

